

대학발전을 위한 고언

-뻘한 얘기를 어렵게 풀어가는 우리의 대학교육정책-



윤 종 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총장과 동경대학교 총장이 만나 얘기하는 자리에서 정운찬 서울대학교 총장이 “대학은 투자를 토양으로 자율을 공기삼아 크는 조직”이라고 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학교에 대한 투자조차 선진국들의 대학에 비해 형편없이 적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대학들이 입학시험 출제형태와 방식마저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대학 토양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무슨 대학의 경쟁력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

최근에 처음으로 서울대학교가 세계 백위권에 진입했다고 대서특필하는 기사가 신문에 실렸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전 세계 교수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세계 최고 대학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서울대가 사상 처음으로 100위권 안에 진입해 지난 해 118위에서 93위로 올라섰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얻은 것은 그래도 최근 몇 년 동안 이른바 BK21 사업 등을 통해 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린 결과라고 본다.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원인은 자율권이 적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지만 그 말을 끝이끝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재정보조를 빌미로 사사건건 정부가 간섭하고 있으며, 어느 것 하나도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없도록 외압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 우리 대

학의 현실이다. 대학입학시험문제 출제 방법까지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도 이 지구상에 또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에 국공립대학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시도되고 있는 국공립대학 통폐합과 법인화 정책 때문이다. 대학의 구조조정이나 법인화 정책은 당위성도 있다. 그러나 국공립대학이라도 저마다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은 획기적인 투자와 자율권이 적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재정보조를 빌미로 사사건건 정부가 간섭하고 있으며, 어느 것 하나도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없도록 외압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 우리 대학의 현실이다.

상황이 다르다. 현실적인 상황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한꺼번에 모든 국공립대학들을 법인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인화를 반대하는 국공립대학 측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며, 그 이유도 일리가 있다. 현재의 사립대학들은 모두 법인체이지만 돈은 쥐꼬리만큼 지원하면서 과도한 국가의 간섭과 규제로 자율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지켜보는 국공립대학들은 결국 국공립대학도 법인화하면서 국가의 지원은 대폭 줄이고 통제권은 그대로 유지하려는 속셈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하기야 정부개입도 때로는 긍정적인 경우

가 있다. 예컨대, 최근에 과학기술부가 KAIST를 세계 톱10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힌 점이 그것이다. 그만큼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뜻이니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없지 않으며, 자칫 돈을 준만큼 대학의 자율권을 제한하고 정부의 입맛대로 대학경영에 참여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우려되는 바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있다. 대학의 획일화현상이다. 이는 대학의 책임이다. 모든 대학들이 특성화해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전혀 특성화가 되어 있지 못하다. 최근에 더러는 특성화를 지향하면서 개혁을 하고 성공을 거두고 있는 사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은 멀다. 하나같이 취업준비교육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며, 그러다보니 기초학문이나 순수인문학은 쇠퇴하고, 실용적인 학문만 성행한다. 교육과정은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놓고 있고, 그것도 두루 구색을 갖추지 못하면 뒤쳐진 대학으로 인식한다. 그러니 심지어 어떤 외국어문학과와 의 경우는 우리나라 대학의 해당 외국어문학과 재학생을 모두 합치면 그 나라의 국어국문학과 재학생보다 더 많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우리는 요즘 대학개혁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도 대학구조조정에 팔을 걷고 나섰으며 대학지원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등 대학개혁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BK21 사업이나, 지방대학육성을 위한 재원조달, 대학개혁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정책 등은 대학들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

결 수밖에 없으며, 대학들이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그 성과도 다소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 미흡한 상태이고, 만족할만한 정도로 가속화, 가시화가 되지 않고 있다. 대개의 대학들은 눈치를 보면서 개혁하는 시늉을 할 뿐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스스로 과감한 개혁을 서두르는 대학은 많지 않다. 그것은 대학개혁이 필연적으로 많은 재정적 부담을 유발하며, 대학구성원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재단이나 대학구성원들도 현실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과감한 개혁과 변신이 필요함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자칫하면 자신의 밥통이 날아갈 판이니 구체적인 개혁안에 대해서는 사활을 건 반발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가장 좋은 한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가 고민인 셈이다.

이 글에서도 대학개혁의 당위성이나 개혁의 구체적인 안까지도 제시할 수 있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인가 하는 대안까지 제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이 글도 결국은 뻔한 얘기를 거듭하게 된 셈이다.

그래도 개혁은 해야 한다. 대학의 질을 높이는 일이 가장 급선무이다. 그것은 국가경쟁력이 곧 대학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양적으로는 세계 선진국이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대학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우선 가장 급한 것은 대학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일이다. 입학정원에서부터

신입생 선발방법, 등록금 책정, 교육과정의 조직과 운영 등 모든 면에서 대학의 자율권이 최대한 보장되지 않으면 대학특성화도 어렵고, 대학의 질을 높일 수도 없다.

본고사도 못 보게 하면서 영어전공자에게 눈술에서 영어로 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연극영화과라면 미인대회 입상자에게 가산점을 줄 수 있으며, 개성미가 넘치는 연기파를 발굴하기 위해 당연히 면접실기를 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대학선택권이 있다면 대학에도 학생선발권이 주어져야 한다.

개혁은 해야 한다. 우선 가장 급한 것은 대학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일이다. 모든 면에서 대학의 자율권이 최대한 보장되지 않으면 대학특성화도 어렵고, 대학의 질을 높일 수도 없다. 다음으로는 대학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다음으로는 대학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지방의 고등학교 교무실 앞에는 '대학교수와 잡상인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고 한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왜 대학교수들이 고등학교 교무실을 들락거려야 하는지는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대학교수들이 고등학교 교무실에 들어서 자기 대학을 홍보하고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로비활동을 하는 그 자체가 허물이 되거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개는 그런 뜻으로 교수들이 고등학교 교무실을 찾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지방대학육성책을 펼치는 것도 의미 있으나 북한에 쌀을 퍼주는 식으로 죽어가는 지방대학들의 목숨을 연장하는 수단 형태의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잘 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부익부빈익빈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지만, 잘 하고 있고, 자구노력을 잘 하고 있는 대학들에 대해 지원을 늘리고, 그렇지 못한 대학, 짝이 보이지 않는 대학에 대한 지원은 과감하게 잘라야 한다.

지방대학 중에도 잘 나가는 대학들이 많다. 지혜를 짜고 아이디어를 산출하면 충분히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음을 실증해 보이는 대학들이다. 그들은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훌륭한 재단과 훌륭

한 교직원들과 훌륭한 학생들이 함께 노력해서 만든 합작품이기 때문이다. **■**

윤종건

대구교육대학교와 영남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행정학으로 석사학위를,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버팔로)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행동 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 중앙 교육연수원 조교수 겸 교육정책과정 실장,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교육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영재올림피아드 운영위원회 위원, 과학기술부 국립중앙과학관운영심의 회 위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교육 발전협의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교육의 이해』, 『교사론』, 『교육행정과 학교경영』, 『창의력의 이론과 실제』, 『21세기의 학교조직 경영론』, 『전환시대의 한국교육행정』, 『창의력 교육의 길잡이』, 『교육개혁론』 등이 있다.

